

2016년 초 브리저(Bridger)의 세상은 뒤바뀌었다. 그 아이가 19개월이란 나이에 우리는 그에게 새로 태어난 여동생을 소개했다. 그의 부모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 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했지만 브리저는 주저없이 크고 넓직한 병원 의자에 뛰어 올라 여동생을 안을 차례를 천천히 기다렸다. 그 순간 부터 그 아이와 그의 여동생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여동생을 안고 있는 내내 그의 통통한 볼 위에 미소가 방을 꽉 채웠다. 그의 할아버지가 차례를 줄 것을 부탁해 보았지만 브리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르키며 동생을 내주지 않을거라는 뜻을 보였다. 그렇게 그 다음 15분동안에도 계속되었다. 다른 누군가가 여동생을 데려가려 할때면 그는 또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고 그로 안게된 동생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브리저는 여동생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이 거의 없었다, 여동생이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주 짜증을 부렸는데도 말이다. 브리저는 사교적이고 늘 배우고 있고 사랑에 차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큰 기쁨이다. 그 아이가 없다면 우리 마음과 집은 공허한 느낌이 들것이다.

지난 2년동안 브리저와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형은 현지에 있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하는 큰 도전에 임하고 있었다. 브리저는 반에서 늘 가장 어리고 가장 작은 쪽에 속했다. 그러한 차이로 인해 그는 자신보다 더 크고 더 경험이 많은 상대와 마주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브리저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성숙도와 실력이 자라났다. 그런 그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주짓수 블랙벨트에서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최근에 브리저의 형은 현지에서 열리는 그레플링 토너먼트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을때 브리저는 우리가 자신을 제일 어린 나이 브라켓에 등록 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그의 형은 승자전에서 일등을 차지하였고 자신의 부문에서 4등으로 들어 온 브리저는 메달을 받지 못 했다는 것에 절망하였다. 그의 부모로서 우리는 그에게 이것은 재미를 위한 것이고 그가 최선을 다 했다는 것 또한 용감함과 대범함을 잘 보여줬다는 것을 말해주려 노력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의 큰 실망감이 더 큰 결심의 시작임을 알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가 격노하여 세계를 강타한 이후부터, 우리 또한 바빴던 일정들로 부터 쉬며 일요일마다 가족 시간을 가졌다. 각기 아이들이 세운 목표들을 검토하고 경전을 읽으며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토론하였다. 브리저는 보통 다른 형제들 보다 기억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그의 '올드 소울' 통찰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곤 한다.

그로 7월 9일 2020년에 브리저가 용감하게 앞선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외의 일이 아니었다. 먼저는 우리가 있었던 일에 꾸밈을 더하려는 욕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필연적으로 네살이 된 딸아이에게서 들은 것과 브리저 자신의 사건 설명으로 들은 내용으로 제한된다.

브리저와 여동생은 친구 집에 있는동안 집 뒷마당에 갔다. 뒷마당에 들어서자 같이 있던 친구가 한 개를 가리키더니 “재는 착한 개고”, 그리고 다른 개를 가리키며 “재는 못된 개야” 라고 설명을 했다.

그 순간 그 개가 자신들에게 뛰어오기 시작했다고 브리저가 설명했다. 브리저의 말에 의하면, “개가 여동생에게 오지 못하게 제가 동생 앞에 섰어요. 저를 지나쳐 동생에게 갈까봐 저는 계속 움직였어요.”

비극적으로 개는 도망치기 보다 뛰어올라 브리저의 뺨을 물었다. 개가 브리저를 물었을 때 그는 동생에게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개가 놓아주고 나서 브리저는 여동생에게 뛰어갔고 뒷마당에 그들이 더 안전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다.

우리가 알기론 그 시점에 주인이 개를 붙들었고 브리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어 부상 입은 곳에 압박을 가하며 구급차를 불렀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에 진심으로 영원히 감사할것이다.

소방관들과 응급 구조 대원(EMT) 들이 도착했을때 비로서 브리저의 부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놀라울만큼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찌나 출혈이 심했는지 소방관은 브리저에게 셔츠를 잘라도 되는지 물어봤다. 브리저는 거절을 하고 말했다 “엄마는 이 셔츠를 좋아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EMT가 브리저를 안정시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와 나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강한 영의 사랑을 느꼈다.

브리저의 어머니가 나머지 가족들을 돌보고 안심시키기 위해 집에 돌아간 동안, 브리저의 아버지는 그와 함께 구급차를 탈수 있었고, 그의 곁을 지켰다. 브리저가 병원 가는길에 말했다, “전 항상 구급차를 타고 싶었지만...이렇게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집에 돌아갈때도 탈수 있겠죠?” 그는 EMT가 준 구급차를 묘사한 스트레스 볼을 무척 좋아했고, 그 후로도 그는 그것을 짝 간직하였다.

병원에서는 응급 요원들이 브리저를 즉시 커튼이 쳐져 있는 구역으로 옮겼다. 그가 울었던 유일한 적은 그가 IV를 받았을 때였다. 어떤 시점에는, 지정 동물 통제 담당관이 찾아와 개의 백신 접종이 모두 최근까지 맞힌 상태였다 말해주기 위해 왔다. 응급 요원은 개의 주인들이 이 사고를 직접 신고를 했으며 그 개의 종은 한살된 저먼 셰퍼드 이고 주인들이 개를 잡 들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리저는 대답했다, "저는 개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죽임을 당할건가요?"

우리는 동물 경찰이 개에 관한 일은 알아서 해결 할 것이며 다시는 그 개를 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브리저의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CAT 스캔 사이의 조용한 순간이었다. 그는 브리저의 병원 침대 옆에있는 접의식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고 세부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다. 브리저가 어떻게 여동생을 보호했는지를 설명하자 그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다. 브리저는 망설임없이 덩덤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죽어야한다면 그건 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일요일에 가족 시간을 갖고 있을때, 우리는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에 대해 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브리저는 그 순간 교사였다. 브리저의 아버지는 응급 요원들이 브리저를 수술에 데려갈 때 까지만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수 있었다. 수술은 거의 2 시간이 걸리는 시술이었다. 얼굴과 두피를 다시 끌어 당기는 것을 포함해 무려 90 바늘 이상으로 제자리에 고정 시켜야 했다. 수술을 위해 응급실을 떠나기 전, 훌륭한 감독 의사 (supervising doctor)이신 의사 요르단 리아 II (Jordan Greer II )박사는 브리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는 제가 봐온 환자들 중 가장 용감한 환자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진심입니다."

다음날 아침 실력이 뛰어난 브리저의 성형 외과 의사 조셉 에프 루비(Dr. Joseph F. Looby)는 체크인 한 후 브리저에게 애완 동물이 있는지 물었다.

브리저는 이렉트라(Elektra)와 토르(Thor)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종류의 개 냐고 물었을 때, 브리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착한 개들이요"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 왔을 때 브리저의 여동생은 그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브리저가 그녀를 보호했고, 피가 너무 많이 났으며, 자신이 '완전히 놀랐었다' 라고 알렸다. 브리저의 온 가족은 이제 그 작은 순간들을 조금 더 감사해 한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뒤바뀔수 있는지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브리저가 힘냈으면하는 차원에서 그의 멋진 이모 니콜은 브리저가 조금이나마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그리고 가능한 미스터 비스트(Mr. Beast) - 그가 좋아하는 유튜버)로부터 지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스타그램(Instagram)에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 뒤에 반응은 놀랍기도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였다. 우리 가족이 준비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 우리는 우리에게 닿은 모든 친절의 말과 사랑, 그리고 기도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다. 우리의 작은 브리저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읽고나면 하루에 몇번이고 진심어린 눈물이 나곤 한다. 이 이야기를 내보내고 나서 우리는 휴 잭맨, 재커리 레비,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루소 형제, 로비 아멜, 마크 러팔로 등등 영웅들과 세계 곳곳에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마음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메시지 들을 받았다. 우리는 받은 지원과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매우 감사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기도와 고심을 해본 끝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다음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주시요.

Mission 22 - 재향군인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단체.

Operation Underground Railroad – 아동 성매매를 영구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또는

The Wounded Warrior Project -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참전용사들이 독립을 되찾도록 돕자" 는 목표를 갖고 있는 단체.

우리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들의 역경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할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개 소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부른 판단을 삼가해 줄것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브리저의 부상 이전에 우리 가족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이번해가 희망적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것 같습니다.

브리저의 행위 이후, 우리 가족의 모두의 생각 끝에 작은 요청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 힘써시다. 약한 자들 억압 받는 자들 세상이 내칠지도 모르는 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브리저의 모범대로,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다가가며, 우리 자신의 가정, 지역사회, 주 및 국가에 더 큰 평화를 가져오기를.